

생명의 소리 '목어'로 정진의 의미 일깨운다



경남 하동군 화개면 지통사에서 목어를 만들며 그림을 그리는 노사나 상목 스님은 4월 23일~29일 인사동에서 '산사에 눈이 내리면' (갤러리 이즈)과 '천년의 소리 목어' (경인미술관)전을 각각 연다.

“수행자가 공부를 목적으로 삼아가지 다른 걸 하면 불발에 어긋나요. 취미라면 모를까. 부처님한테도 미안한 일이지요. 그래서 난 실패작이야. 이번 생은 이미 늦었고 다음 생에는 미안과 같은 곳에서 수행만 하는 스님으로 태어나고 싶어.”

경남 하동군 화개면 지통사에서 목어를 만들며 그림을 그리는 노사나 상목 스님의 솔직한 이야기는 듣는 이를 웃게 한다. 40여년 수행자로 살아온 당신의 삶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상목 스님이 수행하며 완성시킨 작품은 적어도 성공작으로 보인다. 그래서 스님의 말은 맞는 듯하면서도 어딘듯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10여년 만에 서울 전시를 여는 스님은 4월 23일~29일 인사동에서 '산사에 눈이

내리면' (갤러리 이즈)과 '천년의 소리 목어' (경인미술관) 두 개의 전시를 열어 대중들을 찾아간다. '산사에 눈이 내리면' 이 미술학도로 출가해 50여년 그림을 그려온 작가의 시선으로 완성해낸 회화 작품이라면 '천년의 소리 목어'는 매일 매일 수행하듯 나무를 깎으며 생명의 소리를 찾는 구도의 결과물이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점으로 부피감을 살린 듯한 '산사에 눈이 내리면' '산사의 기도' '나를 찾아' 등 30여 작품을 선보여 산사의 겨울 정취와 오롯이 수행을 향해 걸어가는 스님들의 모습을 그려냈다.

“12년전 갤러리가 불이 나 작품 2000점을 다 태운 적이 있어요. 건물이야 다시 지으면 되지만 작품이 다 사라져버리니 허탈감에 걸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캔버스에

노사나 상목 스님 4월 23일~29일 회화·목어 전시

계속 집을 찍으며 그 마음을 담았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그림이 되더라고요. 출가 전부터 치면 한 50년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은 일상이자 놀이죠. 이번 전시에서는 산사의 풍경과 바탕을 짚어낸 스님들의 모습을 표현해 봤습니다.”

스님에게 이번 서울 전시가 의미 있는 이유는 스님이 거주하는 지통사에서 볼 수 있던 목어를 처음으로 서울 인사동에서 선보인다는 것이다. 26년째 목어를 깎고 있는 스님의 작품은 전국 사찰 곳곳에 걸릴 만큼 알려져 있다. 스님은 매일 매일 목어를 깎으며 번뇌 망상을 버리고 삼매의 경지에 이른다고 말한다.

“통도사에서 참선을 하는데 목어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깜짝 놀랐어요. 목어가 항상 깨어 있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뜻이 깊잖아요. 해제를 하고 혼자 목어를 만들어 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전국 사찰을 돌며 모양도 연구하고 제작 방법도 구하면서 목어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스님에게 있어 그림은 일기이고 생활이자 습관이라면 목어는 노동이자 하나의 도전이며 구도의 길과 그 맥을 같이한다.

“목어 만드는 나무는 3년전부터 준비를 해야해요. 겨울 소나무를 골라 제재소에서 다듬어 잘 말리고 건조해 3년을 묵혀 놓아야만 쓸 수 있죠. 처음에는 둔탁한 소리가 나지만 목어의 배를 파면 팔수록 소리가 좋아져요. 이렇게 목어를 완성해나갈때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목어의 소리는

생명의 소리죠. 새벽에 일어나 망치로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가 공간으로 퍼져나가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기분도 좋아요.”

그래서 스님에게 있어 목어를 만드는 과정은 즐거운 창작이자 도전이다. 최소 50cm에서 최대 3m까지 다양한 크기의 목어를 수십년 만들다 보면 이제는 나무만 봐도 어떤 모양으로 목어를 깎아야 될지가 이제는 가능성이 된다는 스님.

휘어지면 휘어진 대로 꼬부라지면 꼬부라진 대로 그 나무에 맞는 모양이 스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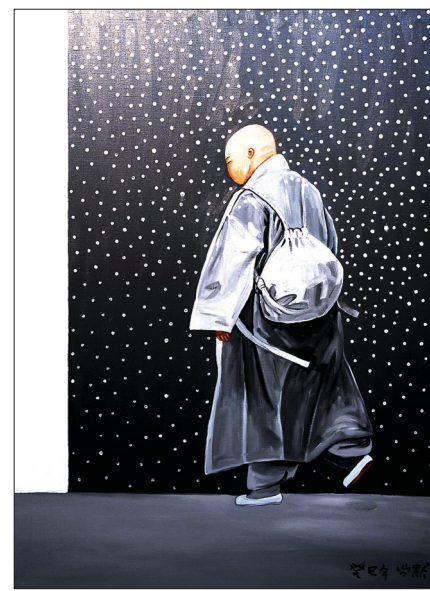
경남 하동 지통사에서 작업한 다양한 목어 작품 전시

산사 풍경 점으로 표현한 회화 작품도 30여 점도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이다. 최소 보름에서 최대 5개월까지 나무를 깎고 깎아 나가면 어느새 수행자의 정진을 일깨우는 목어가 완성된다고 한다.

40여년 전 사바세계 이외의 또다른 세계를 찾기 위해 출가했다는 스님. 연화세계를 뜻하는 노사나불의 노사나를 따와 법호로 하는 스님은 그렇게 자신의 작품을 통해 연화의 세계를 향하며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다. (010)3573-3751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점을 찍어서 완성한 산사의 풍경을 소재로 한 회화 작품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산사에 눈이 내리면' '고향의 아침' '나를 찾아' 순.

동대 미술학과 동문 나눔 '훈훈'

후배 장학금 마련 위한 전시... 4월 18일~20일 스페이스+에서



'84·14 동행'전에 참여하는 박경귀의 '보리수 숲'

입학 30주년을 맞아 동국대 미술학과 84학번동기들이 인드라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84·14 동행'전을 4월 18일~20일 삼정동 스페이스+에서 연다.

스페이스+는 "미술학과 84학번 동기들이 입학 30주년을 기념하여 마련한 전시로 수익금은 동국대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불교미술, 한국화, 서양화, 조각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참여하는 전시에서는 △박경귀 '보리수 숲' △이상기 '마음풍경' △최은정 'HOPE-2013' △박찬용 '애완견' △정수일 '산이 들려주는 이야기' △남종진 '승호관음' △강명주 '참사람 동행' 등의 작품 45점을 만날 수 있다. (02)732-0732 정혜숙 기자

앵글 속에 담긴 '탑의 염원'

사진동우회 심상 25번째 회원전

부천 석왕사 사진동우회 심상(心像)이 25번째 회원전을 연다.

'탑, 염원을 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1차 4월 25일~30일 부천 시청 아트센터 △2차 5월 4일~6일 석왕사 갤러리 △3차 5월 9일~15일 청계천 광고갤러리 등에서 열린다.

심상은 "아름다운 산사와 기나긴 세월 그 자리를 지켜온 오랜 역사가 깃든 여러 사지를 찾고 또 찾아 그 곳에서 만나는 탑을 주제로 했다. 섬세함으로 때론 웅장함으로 친숙함으로 서 있는 아름다운 조형물을 보며 오랜전 세월 그들의 염원도 우리의 염원도 나의 염원도 함께 교감하며 느끼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바란다"며 전시를 여는 취지를 설명했다. 우리문화재의 우수성과 예술성, 아름다



고외숙의 '왕궁리 5층 석탑'

움을 가지고 매년 다른 주제를 선보이는 불교문화 사진동우회 심상은 2012년 '앙코르 유적에 서다' 2013년 '암자에 길을 묻다' 등을 통해 대중들을 만나왔다. (010)2291-2125 정혜숙 기자

국박, 아시아미술 신소장품전

2014년 첫번째 기획 테마 상설전시관서 6월 22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2014년도의 첫 번째 기획 테마전시로 아시아 미술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하는 '아시아 미술 신소장품전'을 6월 22일까지 연다. 중국, 일본, 인도·동남아시아 미술품 66점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아시아 미술의 다양성과 특성을 이해하고, 나아가 아시아 각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용산의 새 박물관 이전개관에 따른 아시아부의 신설과 아시아관 전시의 내실화를 위해 꾸준히 구입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자리다. 그동안 국립중앙박물관은 구입과 수증을 통해 아시아 관련 문화재를 지속적



으로 확보하여 왔으며, 아시아관 상설전시와 다양한 특별전 등을 통해 이를 신속하게 공개함으로써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모두와 함께 공유하고자 노력했다"며 취지를 설명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전시품은 2002년부터 구입하여 보존처리와 조사연구 등을 통해 새롭게 의미 부여를 마친 미공개 66점의 문화재로 구성되었다. 전시품은 크게 중국의 고고·공예품과 일본의 공예품과 회화, 인도·동남아시아의 불교조각과 회화의 세 영역으로 구분해 소개한다. (02)2077-9000 정혜숙 기자

인등 불사와 법당 장엄을 한 번에... 면 자체 발광 성불원 LED 인등

기존에 없는 특허기술이 적용된 면 자체 발광 인등으로 법당 전체가 황금색 조명으로 장엄됩니다.



발명 특허
발명특허번호 제10-1350047호

- 성불원 인등 확대 모습
- 법당 크기에 따라 2가지 크기 선택 가능합니다. 불화 자체가 장엄하게 빛을 발합니다.

성불원 LED 인등의 특징

- 1 기존의 인등과 달리 월등한 밝기로 법당 전체가 장엄됩니다.
- 2 LED만의 저렴한 전기료와 긴 수명으로 누구나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3 원하시는 어떠한 배경 불화로도 제작 가능합니다.

불은 30년 정진으로, 스님들의 장엄 불사에 함께 하겠습니다.

성불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전화 011-276-5251, 010-6857-0108

無碍 양학모 합장 인사 올립니다

목각단청운각 법당장엄 5층 목탑

(간편조립)

전통적인 연꽃 단청과 문창살문양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보다 장엄하게 설치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대웅전, 산신각, 포교당, 소법당 등의 천장에 누구나 간편하게 직접 조립할 수 있게 제작



■ 3차 : 1판 ■ 2차 : 4판 ■ 1차 : 4판

※ 단청운각 1세트 17차 (5m, 10cm), 가격 : 90만원



● 크리스탈사리탑
높이 45cm / 가로, 세로 20cm
가격 : 35만원



● 크 기 : 높이 120cm / 하단 가로 45cm
보급가 : 900,000원 (배송비 포함)
* 내부 조명등 있습니다.



고전
상사

전화 : 031)442-3168 / 010-5599-3165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 5동 618-185번지
계좌번호 : 농협 302-0519-1995-01 (메규주 : 장돈희)

모든 제품은 입금 후 우편 배송을 드리며,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하여 드립니다.